

자가배합사료 생산을 활성화 하자



채 병 조 교수
(강원대학교 사료생산공학과)

양돈에서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농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매출액의 65~70%를 차지한다고 생각하면 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곡물의 자기충당이 가능한 미국의 50%선에 비하면 구조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말 IMF체제에 돌입하면서 우리 양돈농가들이 겪고 있는 사료비 부담은 IMF이전에 비해 훨씬 무거워졌다. IMF 전후를 비교해 볼 때 40%선의 인상에서 근래의 10%도 안되는 인하는 결국 30%이상의 인상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언제쯤 대폭적인 인하요인이 생길지 예측하기 어려운 현 시점에서 돈육시세도 그렇고 양돈농가들은 시름이 더할 수밖에 없다.

양돈업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돈육의 소비급증으로 수요량이 크게 창출되어 돈가가 안정되든지, 아니면 현재와 같은 여건에서는 사료비를 절감하여 생산비를 낮추든지 그런 방면외엔 대안이 사실상 없다. 양돈에서 사료비 비중은 농가에 따라 5%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농장에서 사양관리를 잘하면 그 정도의 절감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5%정도의 절감으로는 현실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준이 될 수 없다. 대폭적인 절감방안을 찾아보아야 한다.

요즘 이러한 사료비부담 문제를 자가배합사료 생산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노력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에서도 자가배합의 장려책 일환으로 농가에서도 사료회사와 같이 수입 곡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준비중에 있고 많은 농가에서 자가배합을 시행 또는 구상하고 있다. 과거에는 각종 산업부산물이나 남은 음식물이 폐기처분대상으로서, 사료로 이용하고자 할 때 처리비 보조까지 받았으나 이제는 그나마 경합이 벌어져 돈을 주고서도 구하기 어려워 졌다는 농가의 하소연에서 자가배합사료의 활용이 커졌음을 실감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자가배합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실 자가배합은 농가에서 사료용 곡물을 자체생산할 때 나머지 원료의 구입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가는 자체생산곡물이 전혀 없으므로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몇몇 부산물에 의존해야 하나 외국의 그것과는 의미가 다르다. 우리나라의 여건에서 성공적인 자가배합에 대한 의미를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얼마나 사료비를 절감하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 품질 관리를 잘해서 돼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자가사료가 가격이 저렴해질려면 부존자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외형적으로 볼때 취급하기 다소 힘들고 역겨운 원료라도 잘 활용하면 사료가치가 있는 그런 원료를 확보해야

원가가 내려갈 수 있다. 일반 사료회사에서 통상 사용하는 어분, 대두박 등의 양질의 원료만으로는 사료비가 절감될 수 있는 자가사료를 생산할 수 없다. 자가배합에서 품질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원료의 평가에서부터 생산공정전반에 걸쳐 전문가의 조언없이 최적 배합률표와 돼지의 최대생산성을 가져올 수 있는 고효율사료를 생산할 수 없다. 자가배합에서 실상 사료의 원가는 절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고품질의 사료를 생산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사료회사에서 구입하는 배합사료에 대하여 많은 농가들이 품질에서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가배합을 원활히 수행하는데는 원료의 수급이 수월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자가배합을 원하는 농가가 배합사료공장과 같이 수입된 사료원료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일이나, 잔여음식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료화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수거망을 구축하는 일들이 그러하다.

일반사료회사도 자가배합을 원하는 농가에 대하여 할 일이 많다. 농축사료나 첨가제의 공급, 사료제조기술의 지원 등 자가배합 농가에 배타적인 자세보다는 상호협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곧 사료업계와 양돈업계의 공존을 의미할 수도 있다. 산업간의 연계없이 상호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음을 서로 인정해야 한다.

요즘 각종 축산관련매체에서 양돈농가들의 고충에 관한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분노처리의 고충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사료비인상에 의한 소득문제도 사실상 심각하다. 지난 10여년간 양돈경기가 비교적 좋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분노처리나 시설현대화 등으로 인하여 많은 자금이 투자된 것도 사실이다. 부채가 많은 양돈농가가 허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때 사료회사에서 앞에서 지적한 대로 자가배합농가에 기술지도를 해야하고, 보다 값싼 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거품을 빼는데 주저해서는 안된다.

양축농가 없이 사료회사는 절대 존재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사료회사간에 경쟁의식에서 사료 가격을 인하하는 그런 자세보다는 진정으로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양돈농가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사료가격을 능동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제조경비를 줄이고 쓸데없이 과다 지출될 수 있는 영업비 등을 줄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자가배합사료의 생산을 활성화 하자. 원가절감을 위해 우리의 부존자원과 사료화가 가능한 산업부산물물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관련당국이나 관련업계 모두 양돈농가에서 자가배합사료생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養豚**

자가배합사료의 생산을
활성화 하자. 원가절감을
위해 우리의 부존자원과
사료화가 가능한 산업부산
물물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
다. 관련당국이나 관련업계
모두 양돈농가에서 자가배
합사료생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자
세가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